

LOCAL

2025년 8월 4일 월요일

광양백운산 산림박물관 '산' 주제 서양화 초대전

광양시는 지난 2월 개관한 백운산산림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산'을 테마로 한 서양화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초대전은 광양여성작가회 소속 박하나 작가를 초청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산림문화 콘텐츠의 대중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산의 사계절과 자연의 기운을 담아낸 '백운산', '찬란의봄', '설록', '앵가', '산림지사' 등 서양화 16점으로 산림박물관 2층 복도와 제2, 제3 전시실에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감성을 함께 느끼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지역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생태, 문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영암형 통합돌봄' 관심 집중 전남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전남 기초지자체 공직자들이 영암군민의 일상을 지지하는 '영암형 통합돌봄'을 배우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과 화순군 복지 공직자 등이 영암군을 방문해 통합돌봄추진단 등 통합돌봄 정책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달 23일에는 고흥군과 목포시 공직자들이 군의 복지 정책을 살폈다.

군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통합사례IT'를 신설하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이러 보건복지부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암군민 누구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틈새이음영암 돌봄사업'으로 병원, 행정기관 방문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이가 젊은 의료·복지·돌봄 분야 칸막이를 낮추고, 매주 1회 정기 복지 부서 및 유관기관의 '통합돌봄 협의회'로 영암군민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형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을 공동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장성무궁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장성 무궁화공원 (왼쪽)과 상무명화공원 모습.



시원하게~ 무더위 날릴 장성 콘텐츠 '흥행 예감'

7~8일 무궁화 장성대축제·8~9일 썸머뮤직페스타 22~23일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썸머나잇피크닉도

장성군이 후텁지근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3일 군에 따르면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장성무궁화공원 (장성을 영천리 985)에서 열린다. 전국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산림청 전국단위 행사로, 전남을 대표해 장성군에서 개최

된다. 축제는 세 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무궁화공원에서는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열려 무궁화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300개의 무궁화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무궁화 묘목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공원 한편에선 꼬마 관객들을 위한 무궁화 소품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워터슬라이드, 물총 싸움 등 무더위를 잊게 해줄 물놀이는 무궁화공원 아래 경관폭포 방면에서 즐길 수 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은 공원 아래 주차장 부지에서 열린다.

7일 오후 6시 장성지역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랑'과 가수 황민호, 지창민 등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을 본 뒤에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있는 반디조명과 경관폭포 투광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을 만끽해도 좋다.

8~9일 상무명화공원 축구장에서 열리는 '2025 여름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

도 기대를 모은다. 첫날은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트롯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태현 등의 트로트 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락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남방고양이', '오리 날다' 등 히트곡을 보유한 '체리필터'와 '트랜스픽션', '극동 아시아타이거즈', '롤링퀴츠'가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위해 '워터밤' (물대포)과 무료 물놀이장도 준비된다.

황룡강에서도 '시원한 이벤트'가 열린다.

22일부터 23일까지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썸머나잇피크닉'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멀티 레이저쇼'와 '7080콘서트', 1000명에게 맥주 1000잔을 1000원에 판매하는 '천천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22일 밤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정평이 난 가수 소찬휘의 무대가 기다린다.

김한중 군수는 "유난히 더운 올여름, 장성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장성의 자랑인 제철과일과 맛집 음식도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나주, 상반기 계약심사로 예산 7억 절감

188건 심사...예산 집행 투명성·효율성 ↑

나주시가 예산 7억여원을 절감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기여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행된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분야 188건의 사업을 검토해 총 7억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6억3000만원, 용역 6600만원, 물품 1300만원 등이었다.

계약심사제도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조정한다.

심사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 등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실제 누락이나 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

영해 표준품셈 및 전남도 예산 기준을 근거로 추가 증액하는 등 단순 감액이 아닌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한 조정도 병행했다.

시는 재정 건전화와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상반기 직무교육, 사전 협의 강화, 현장 방문 심사,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윤병태 시장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지속해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땅끝햇살, 전남 10대 브랜드쌀 '대상'

해남군은 최근 프리미엄 쌀 브랜드 땅끝햇살이 '2025년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땅끝햇살은 해남의 맑은 자연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란 고품질 쌀이다. 철저

한 품종관리와 품질 개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품종 혼입률, 외관 품위, 전문 패널의 식미 평가, 잔류농약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땅끝햇살은 2016년 상표 등록된 해남군 브랜드로, 지역 내 5개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공동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전남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새청무' 품종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단일품종 재배와 계약재배, 토양 적합지 선정 등 과학적인 재배 방식으로 생산돼 윤기 있고 차진 밥맛이 특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gwangnam.co.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설명회 무산 한빛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백지화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최근 지역주민 동의 없는 한빛핵발전소 내 고준위 임시 저장시설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한빛원전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에 1만명이 넘게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빛원전에서 짝뿔 배터리와 원자로 헤드 제작 결함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설명회는 군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한 주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쉬쉬하며 숨기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설명하는 등 축소 은폐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을 비롯해 영광지역 주민이 반대하면서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25일 공포됐으며 시설 용지 선정 절차, 실행기구 설치, 주민 참여와 지원 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시행령(안)을 만들고 오는 11월까지 주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이 정책은 핵폐기물 문제의 임시방편일 뿐 미래 세대에게 핵폐기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이다"며 "관련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 시설을 찾지 못하면 결국 한빛원전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장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특허등록번호 01-177030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라

1.5g

K-낙산균 200 mg, BIFIDOBACTERIUM 200 mg, 프리바이오틱스 100 mg, 유산균 10 mg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특허등록번호 01-177030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라

1.5g

K-낙산균 200 mg, BIFIDOBACTERIUM 200 mg, 프리바이오틱스 100 mg, 유산균 10 mg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특허등록번호 01-177030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라

1.5g

K-낙산균 200 mg, BIFIDOBACTERIUM 200 mg, 프리바이오틱스 100 mg, 유산균 10 mg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